

# ‘영암형 지역순환경제’ 구축... 4대 전략 공개

### 전략수립 주민공청회 개최 로컬푸드 고부가가치화 등 지방소멸 극복 위한 공론장 39개 앵커 기관·기업 협약

영암군이 관내 39개 기관·기업과 지역 농특산물 우선 구매 실천 협약을 맺는 등 ‘영암형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일 영암군에 따르면 지방소멸을 지역순환경제로 극복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5일 군청에서 군민, 지역 앵커기관·기업, 공직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암형 지역순환경제 전략 수립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주민공청회는 지난달 7일 전국 최초로 시행된 통합형 지역순환경제 법령 ‘영암군 지역순환경제 기본 조례’를 기반으로 한 ‘영암형 지역순환경제 4대 핵심 전략’을 군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장으로 꾸러졌다.

공청회는 황종규 교수의 ‘지역위기와 지역 만들기의 주체’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영암형 지역순환경제 전략 수립’ 연구 용역 중간보고로 이어졌다.

군은 지난 6월부터 지역소멸 위기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행복한 군민 삶 제고 등을 위한 ‘영암형 지역순환경제 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날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통해서 영암형 지역순환경제 4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 모델이 공개됐다.

먼저 1대 전략은 ‘로컬푸드 고부가가



지난 5일 영암군이 군청에서 ‘영암형 지역순환경제 전략 수립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영암군 제공

치화 및 기획 생산 체계 확립’이다. 기획 생산 체계 확립 등 질 높은 로컬푸드 공급 체계를 갖추고 온라인 등 판로를 확대해 현재 20억원대의 로컬푸드 매출을 100억 원대로 5배 이상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36%에 그치고 있는 영암산 학교 급식 납품 식재료도 학교급식통합지원센터 운영,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를 통해 오는 2028년까지 지금의 2배인 72%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영암군은 농산물 유통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중소농·고령농·청년농 등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2대 전략은 ‘영암형 지역순환경제기금 조성’이다. 지역순환경제의 마중물로 기금을 조성해 주거·의료·돌봄·복지·환경 등 공공서비스 사업을 발굴·투자하고 관

련 창업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3대 전략은 ‘사회적경제 조직, 중소기업 입찰 기회 확대’로, 지역 내 확보가 어려운 물품에 대해 가까운 지자체와 광역 공공조달권을 형성, 규모의 경제로 원료 단가 감소와 지역소비자 이익 증대에 나선다. 지역 생산자의 판로 역시 광역권 안팎으로 다양화해 사회적경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특히 영암군은 내부 공공조달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만, 지역 경제규모가 크지 않아 인접 시군 및 전남도와 광역 공공조달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4대 전략은 ‘지역경제주체 거버넌스 구축 및 지역순환경제 전담 부서 설치’다. 군은 영암군의회, 공공기관, 대학, 병원, 민간기업, 금융기관까지 지역의 앵커

기관과 거버넌스 기반 구축에 나선다.

이어 각 부서와 기관 간 별개 추진 중인 사업을 하나로 묶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순환경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4대 전략 공개에 이어 공청회에서는 39개 민관산학 앵커기관·기업들과의 ‘영암형 지역순환경제 실천 협약’ 체결도 이뤄졌다.

이날 협약을 위해 39개 단체 중 22개 기관·기업이 주민공청회장에 함께 했으며 17개 기관은 협약에 동의하는 의미로 사전 협약서 서명을 마쳤다.

실천 협약서에는 △정주 인구 확대 지원정책 발굴·시행 △임직원 영암군 전입 장려 △지역인재 우선 채용 △고향사랑 기부금 등 각종 기부금 사업 발굴·홍보·모금 △영암사랑상품권 확대·구매 △영암산 농특산물 우선 구매 및 공급 체계 구축 △각종 기부·나눔 활동 및 민관 복지서비스 연계·지원 등 사회공헌활동 △기타 상호 합의 및 지역순환경제 협력사항 등 총 8개 조항이 담겼다.

각 협약단체는 실천 협약서를 바탕으로 영암형 지역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추후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 분야별 협약 체결을 이어갈 예정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지역 내에서 생산된 부가가치가 다시 지역 내에서 소비되고 재투자되는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해 영암군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영암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영암·한교진 기자

### 신규회원 300명 선착순 모집 무안군 장난감도서관

무안군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2025년 무안군 장난감도서관 신규회원 3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회원 신청은 무안군장난감도서관 홈페이지(www.muantoy.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무안군 주소 여부 등을 확인 후 선별한다.

등록 회원은 연회비 2만원을 납부하고 1년 동안 총 900여종, 1800여점의 다양한 장난감을 최대 14일까지 대여할 수 있다.

무안군 장난감도서관은 영유아의 감염병 예방 및 깨끗하고 안전한 장난감 제공을 위해 사용 전후에 철저히 세척과 소독을 하고 있으며 선호도가 높은 인기 장난감을 매 분기 추가로 구비하고 있다.

2025년 상반기에는 장난감도서관 확장 및 리모델링 공사로 영유아 가족 휴게 공간을 조성하는 등 육아 환경 개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명수 무안군 신도시지원단장은 “이번 모집 회원은 무안군에 주소를 둔 취학 전 아동의 보호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회원 100명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 독감·코로나19 동시 접종 당부 해남군, 관내 의료기관 64개소

해남군이 본격적인 겨울을 맞아 독감 등 각종 예방접종을 반드시 챙길 것을 당부했다.

10일 해남군에 따르면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독감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13세 이하 어린이 독감접종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 접종이 가능하며 관내 보건기관과 의료기관 64개소에서도 접종이 가능하다.

65세 이상 어르신,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취약계층 등은 무료이며 그 외 14~64세 일반국민은 보건기관 이용 시 1만원의 접종료가 있다.

건강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어르신은 국가 무료 접종으로 독감 백신과 코로나19 백신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국민은 지정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할 수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무료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받아야 한다.

올해 65세가 되는 1959년생 어르신들을 비롯해 아직 접종하지 않은 미접종 어르신들은 관내 22개 지정 의료기관과 14개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대상포진 예방접종도 실시한다. 65세(1959년생)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무료 접종이며 그 외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어르신은 비용의 50%를 군비로 지원한다. 총 2회 접종하며 1회당 접종 비용은 8만 7500원이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접종할 수 있다.

13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독감을 비롯해 보건기관과 지정병원에서 결핵 등 18종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표준 접종 일정에 따라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해남·전연수 기자

### 수도시설 동파 방지 긴급복구반 해남군, 내년 3월까지 운영

해남군은 겨울철마다 반복되는 수도시설 동파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수도시설 동파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을 통해 수도계량기 등 동파가 우려되는 수도시설물에 긴급 복구 자재와 비상 급수 장비를 마련하고 긴급복구반을 편성, 동절기 동안 상시 운영한다.

특히 내년 3월15일까지는 동파 민원처리 상황실을 운영한다. 동파 신고 접수 시 긴급복구반을 편성해 즉시 출동, 복구할 계획이다.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량기함 내부를 보온팩이나 현 옷으로 채우고 보온통을 비닐 커버 등으로 넓게 밀폐해 보온 조치해야 한다.

또 장시간 외출하거나 한파가 지속될 때는 물을 약하게 틀어서 계속 흐르게 하면 시설물 보온 조치뿐만 아니라 동파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수도계량기 및 수도관이 얼었을 시에는 갑자기 뜨거운 물로 녹이면 유리 파손 등 고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건이나 헝겊으로 계량기를 감싸고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해 천천히 녹이거나 15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 점차 따뜻한 물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녹여야 한다.

해남군 관계자는 “동파 예방법을 충실히 따라준다면 대부분의 동파 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계량기 보온 방법과 동결 시 조치방법을 미리 숙지해 겨울철 동파사고에 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지난 9일 무안군 청계면 새마을부녀회들이 청계면복합센터 일원에서 김장김치를 만들고 있다. 이날 만들어진 김치는 총 800포기로, 지역 취약계층 세대에 전달됐다. 무안군 제공

### 무안군 청계면 새마을부녀회, 김장김치 나눔

무안군 청계면 새마을부녀회가 지난 9일 청계면복합센터에서 사랑의 김치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10일 무안군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새마을 부녀회 회원 등 50여명이 참여했으며 총 800포기의 김장김치를 담가 독

거노인 등 취약계층 세대에게 전달했다.

이번 김장을 위해 부녀회 회원들은 지난 7일부터 3일간 밤에서 재배한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김치소를 만드는 등 김장 준비에 구슬땀을 흘렸다.

무안·김행언 기자

### 강진군, 크리스마스 맞이 공연 ‘풍성’

#### 오스트리아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등

강진군은 품격 있는 공연프로그램의 성지인 강진아트홀에서 연말을 맞아 군민과 강진을 찾는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수준 높은 공연들을 준비했다고 10일 밝혔다.

‘음악으로 만나는 크리스마스’를 주제

로 펼치는 연말 콘서트 중 첫 공연은 수많은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한 젊은 음악가들이 모여 지난 2006년 결성한 오스트리아의 정통 체임버 오케스트라 ‘비엔나 모르핑 솔리스츠’의 내한공연이다.

모차르트, 바흐, 브람스 등 우리에게 친숙한 곡들을 선사하게 될 이 공연은 오는 18일 오후 7시에 펼쳐진다. 이날 무대에

는 KBS 열린음악회, MBC 가곡의 밤 등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높인 메조소프라노 신현선의 깜짝 출연도 예정돼 있다.

오는 23일 오후 7시에는 ‘아름다운 구속’, ‘겨울비’, ‘대답없는 너’ 등의 히트곡을 바탕으로 널리 알려진 국민 로커 김중서의 단독공연이 열린다.

전남음악장작소가 마련한 이번 공연에는 창작소와 인연이 깊은 밴드 양리머스가 포문을 열며 분위기를 달굴 예정이다.

강진·김윤복 기자